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아모스서-

심판의 주 되심

(아모스 9장 1 - 15절)

아모스 선지자는 황충의 재앙, 불의 재앙, 다림줄 재앙, 그리고 여름 실과 한 광주리의 환상에 이어 심판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서 신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시면서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1.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 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1절).

제단은 성소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불태워 바치는 곳입니다. 제단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를 하시며 원수 된 우리를 화목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단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평강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먼저 임하는 대상은 유대인이며 그 후에 믿는 자들과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2.피할 수 없는 심판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2-4절).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 다른 나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곳에서도 끌어내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도망을 가고,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은 이미 그 곳에 계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5절).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웅대하심 앞에 인간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잡들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7절).

배신자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만 백성 중에서 뽑으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는 어떤 화도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3.회복의 날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안전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에 모아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 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모스서에는 ‘그 날’이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2:16, 8:3,9,13). ‘그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며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중생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날은 천지가 개벽을 한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입니다. 바로 ‘그 날’에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이 계승되고 예수 그리스도

가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므로 무너진 다윗의 집이 다시 일어나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너진 영적인 집이 일으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12절).

메시아 시대는 유대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며 만방의 이방 백성들도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3절).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는 물질의 변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질의 변영은 생명의 변영을 말합니다. 곡식이 얼마나 빨리 익는지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을 뒤이어 씨 뿌리는 자가 따라잡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2모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확이 남보다 배로 늘어나고 포도나무에서 단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작은 산, 곧 목장은 잘 되어 젖이 많이 생산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복음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는 육신적인 부요가 아닌 영적인 부요가 넘쳐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14-1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안전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에 모아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 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만 여기서는 예수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성전,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끊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그 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땅에서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8대 장로후보 20명 공천

- 여성후보는 전무 -

우리교회 임시제직회가 지난 주일(5월11일) 찬양예배 후 장로후보 공천을 위한 투표를 하였다. 안수집사 50명, 협동장로 2명, 시무권사 178명 총 230명의 회원 중 중다수로 20명을 선발하였다. 그 중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믿

음이 충만한 10명의 8대 장로를 오는 25일 주일 공동의회에서 선발한다. 20명의 공천된 후보 중 여성이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아쉬운 여운을 남겼다. 공천된 20명의 인적사항은 3면에 게재되어 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루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개역개정판 딤편전 3장 1~7)

2003 홍해작전

6월6일(금) ~ 25일(수) 까지 20일간 새벽 5시

2003년도 홍해작전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홍해바다를 만나 홍해에 빠져 죽거나 뒤에서 쫓는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죽거나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 기도로 민족을 구하여낸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이번 홍해작전 기간 중 위기에 처한 조국의 안전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놓여있다. 기도할 수 있는 때 기도하자. 북핵문제로 백척간두에 선 조국의 안전과 민족교회 갱신과 타락한 우리 사회와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당 등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직 기도 외에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이번 홍해작전 기간 중 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서 모든 문제를 해결 받아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주 제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 14:17)

표 어

- 엎드려 기도하자 조국의 평안을 위하여!
- 일어나 전도하자 민족의 복음화 위하여!

행동강령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홍해작전 조직

- 시령관: 이종운 목사
- 참모장: 정병무 장로
- 기획참모부: 박두호 장로 · 행정참모부: 홍성주 장로
- 예배참모부: 성준경 장로 · 찬양참모부: 임상현 장로
- 동원참모부: 이만형 장로 · 안내참모부: 이복규 장로
- 봉사참모부: 이관규 장로

기도제목

1. 개인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위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어 변화된 자신을 주님위해 온전히 헌신케 하소서

2. 우리의 가정의 구원과 자녀들을 위하여

온 가족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역경과 환난 중에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게 하소서

3. 서울교회의 부흥과 받은 사명을 위하여

받은 사명 감당케 하시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전도의 불길이 타올라 질적 양적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4. 새예배당 헌당을 위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새예배당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5. 비전 2020 운동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군 복음회를 통하여 이 나라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2020년까지 민족의 75%의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소서

6. 한국교회의 갱신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갱신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온 세계의 제사장이 되어 세계선교의 선봉이 되게 하소서

7. 조국의 평안과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평안으로 인도하시 북핵사태로 인한 위기의 조국을 권능의 손으로 구해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이루게 하소서

찬양대원 세미나

5월23일(금) 오후7시 웨스트민스터 홀

5월 23일(금)오후 7시에 찬양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박신화 교수로 연세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합창 지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립, 대우, 서울시립합창단 등 유명합창단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영락교회 갈보리 성가대 지휘자, 안산시립합창단 상임 지휘자,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교회 모든 찬양대원들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식사는 저녁 6시부터 8층 만나 홀에서 제공된다.

가정의 달 특별 신앙강좌

5월26일(월)오후 7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우리교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박성수 장로(서울교회)를 강사로 모시고 5월26일(월) 오후 7시30분,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신앙강좌를 갖는다. 특별히 금번 세미나는 '천국과 천체의 비밀'을 주제로서 어린 자녀를 둔 성도들의 가정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성수 장로는 미국 웨스턴 미시간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사범대 교수, 한국 카운슬러 협회 회장, 한국 청소년 원장, 전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명지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가족 찬양대회 은혜롭게 마치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찬양대회가 지난 16일(금)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많은 성도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 속에서 총 19개 팀이 참여하여 열띤 대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모든 참가자들이 제각각 특색 있게 찬양을 하여 사랑상에 노련한 장로가정, 믿음상에 12교구 2·7·8 다락방, 소망상에 백정순 권사의 5명-10교구 권사, 화평상에 13교구 여다락방장, 온유상에 이은옥 권사의 9명-3교구 14다락방, 충성상에 이인숙 권사의 9명-1교구 16다락방, 특별상에는 에바다부가 수상하였다.

이들의 발표와 시상은 오늘(18일 주일)찬양예배 시에 한다.



▶ 율동으로 찬양한 에바다부

금주의 성구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편후 1:5)
I have been reminded of your sincere faith, which first lived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in your mother Eunice and, I am persuaded, now lives in you also. (timothy1:5)

제8대 장로 후보 명단



1. 신용식

2. 조정식

3. 박두영

4. 최학인

5. 전기섭

6. 박정선

7. 김영주

8. 오광환

9. 황정욱

10. 김중근

11. 우지원

12. 김형택

13. 이제원

14. 최영렬

15. 탁경준

16. 이계홍

17. 장영일

18. 이상호

19. 하인선

20. 이학주

번호	성명	나이	교회 봉사	학력	직업	가족
1	신용식	52년생	제작회 서기, 유년부 부장, 바울선교회 회장, 베들레헴찬양대원, 필그림유소년축구단 단장	대졸	(주)르본 대표이사	처 김신영 집사(교구간사, 할렐루아찬양대원, 시온찬양대원)와 2남(두호, 재호)
2	조정식	51년생	스데반회 간사, 어린이요호찬양예배 부장, 임마누엘찬양대원	고교 중퇴	영일주유소 대표	처 김영식 집사(교구간사, 다락방장, 할렐루아찬양대원)와 1남(남현), 1녀(현숙)
3	박두영	36년생	장년5부 부장, 수요어린이예배 부장, 실용경로대학 총무, 아브라함남선교회 회장, 상조부부장, 새벽예배 음향실 봉사, 다락방장	고졸	자영업	처 전영자 권사(권사회 구제부장, 한나여전도의 회계, 현금위원, 목회자신학세미나 식당봉사 및 나눔의 집 봉사, 실용경로대학 교사 및 식당봉사, 다락방장, 상조부 봉사)와 2남(영수, 영수) 처 최소의 권사(마리아여전도의 회장, 교구간사, 다락방장, 전도위원회 간사, 할렐루아찬양대 회계, 시온찬양대 회계)와 1녀(수정), 1남(광혁)
4	최학인	46년생	협동장로, 베들레헴찬양대원, 상담부 부장, 교사(할렐루아찬양대), 5교구장, 다락방장	대졸	조선산업 협동조합 상무 (중물영원장)	처 최소의 권사(마리아여전도의 회장, 교구간사, 다락방장, 전도위원회 간사, 할렐루아찬양대 회계, 시온찬양대 회계)와 1녀(수정), 1남(광혁)
5	전기섭	49년생	협동장로, 2교구장, 장학위원장, 교사(장년2부 및 임마누엘찬양대), 베들레헴찬양대원	대졸	한국바이린(주) 한국필 테택(주) 대표이사	처 원영애 집사와 1녀(성신), 1남(신일)
6	박정선	45년생	찬양대양성반 교사	대학원졸	단국대 음대 교수	처 김남순 권사(다락방장, 현금위원, 장년부 교사)와 1녀(선영)
7	김영주	40년생	장년4부 부장, 베들레헴찬양대원, 시온찬양대원	대졸	북한연구회 (연구위원)	처 이애순 권사(초등부 부장, 임마누엘찬양대원, 권사회)와 1남(한성), 1녀(지윤)
8	오광환	50년생	스데반회 총무, 고등부 부장, 교육위원회의 간사, 갈렙찬양대원, 베들레헴찬양대원, 다락방장, 비전2020본부위원	대학원졸	건설업 (전무이사)	처 이안순 권사(교회 사무국)와 1녀(세정), 1남(세인)
9	황정욱	40년생	장년3부 부장, 다락방장	대졸	삼광통운(주) 대표이사	처 주경자 권사(70인전도대 수요간사, 장년부 교사, 임마누엘찬양대원)와 2녀(지영, 순영), 1남(유식)
10	김중근	49년생	새가족부 부장, 교구간사, 베들레헴찬양대원, 바울선교회 부회장, 다락방장	대졸	(주)BYC<백양> 영업본부장	처 최예순 권사(유아부 교사, 부다락방장)와 1남(지홍), 1녀(지원)
11	우지원	50년생	예배안내위원, 평신도신앙강좌반 부장, 베들레헴찬양대원	대졸		처 정옥희 권사(현금위원, 다락방장, 평신도신앙강좌반 안내)와 2녀(서윤, 서경)
12	김형택	43년생	임마누엘찬양대 부대장	대학원졸	원예(농장주)	처 윤갑숙 권사(영어성경반 부장)와 2남(범구, 성구)
13	이제원	47년생	평신도신앙강좌반 부장	대졸	부동산 컨설턴트(대표)	처 김운숙 집사와 1녀(승현), 1남(승준)
14	최영렬	54년생	갈렙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아찬양대 부대장, 다락방장, 시온찬양대원, 베들레헴찬양대원	대학원졸	초등학교 교사	처 김찬진 권사(고등부 교사)와 2남(음, 정신), 1녀(아영)
15	탁경준	42년생	새가족부 안내담당, 새가족부 소요리문답반 교사	대졸	(주)정진 TARKS공업 대표이사	처 전정숙 권사(유년부 부장)와 2남(정만, 영한)
16	이계홍	50년생	예전부 부장(식당관리), 다락방장, 바울선교회 총무, 베들레헴찬양대원	중졸		처 성순자 집사와 2남(승범, 총범), 1녀(조은)
17	장영일	43년생	교구간사, 장년4부 부장, 계수위원, 베들레헴찬양대원, 다락방장	미술 교육원 수료	자영업	처 정정숙 권사(유년부 교사)와 1녀(승은), 1남(정환)
18	이상호	46년생	장년부 교사, 교구간사, 봉사부 부장(구제위원회), 베들레헴찬양대원	대중퇴	자영업	처 김치순 권사(현금위원, 다락방장)와 2남(원희, 영희)
19	하인선	49년생	현금위원, 현금계수위원, 차량봉사, 상담(의료)위원, 베들레헴찬양대원	대학원 졸 (의학박사)	의왕 한일신경외과 원장	처 남태순 권사(유치부 부장, 주부대학 교사, 다락방장)와 2녀(영인, 혜심), 1남(상영)
20	이학주	46년생	대학부장, 필그림찬양대장	대학원졸 (교육학 박사)	울산대학교 교수	처 이은옥 권사(대학부 교사, 권사회 서기, 주부대학 교사, 상담위원 교육팀장, 다락방장)와 2녀(시내, 한결)

편지 왔어요 항암 치료와 골수이식을 마치고

이중윤 목사님께
주의 은혜 중에 문안과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가내와 관계된 법사에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3주간 입원하여 마지막 강력한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토)에 퇴원하였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엄격한 관리와 통제 아래서 어렵
고 긴 후속치료와 요양을 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찬양을 하며 하루 하루 조심
스럽게 자내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목사님과 서울교회의 성도님들을 뵙
고 선교지로 들어갈 날을 기대하면서 지냅니다.

퇴원 후에 들은 동아시아의 소식은 "SARS(사
스)"로 인하여 공공장소의 모임이 금지 되어서 교회
의 전체 모임도 금지되어 신학교의 5월 수업이 연기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기독교 교회의 또 다른 시련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다시 소식 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홍의만 선교사 올림

우리 선생님 멋쟁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께 이렇게 감사 편지를 드
립니다.

한주 동안 지친 우리들을 항상 웃는 모습으로 반갑고
편안하게 맞아 주시는 선생님을 뵈면 제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사랑받는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지금까지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습니다.

고3이라 걱정거리가 많은 저희들을 한명 한명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
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대학에서 교수로, 주일에는 고등부 교사로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시는 선생님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선생님의 기도를 힘입고 꼭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이 더욱 훌륭하
고 멋진 선생님이 되시길 항상 기도할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명아 선생님께
승섭이가 드림

서울교회의 새로운 오르겔

홍성훈
(오르겔 비우 마이스터)

물감의 색들을 합치면 합칠수록 그 더해지는 색은 점점
검어지나 하늘의 색들은 합치면 합칠수록 점점 더 환한 빛
의 색깔을 띠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르겔의 소리도 합치면 합할수록 점
점 더 밝고 환한 소리의 색깔을 띠게 된다.

옛부터 파이프오르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예배전례에 빼놓을 수 없는 악기이다. 그라
서 우리는 파이프오르간을 하늘의 악기라고 칭하기도 한
다.

2003년 4월 21일 한국에 도착한 3개의 컨테이너는
2000년부터 시작된 오르겔 작업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
내기 시작했다.

오르겔 디자인과 소리 배치도를 위한
구상부터 시작해 설계를 통해 통나무를
잘라 나무 파이프를 만들고 주물을 통해
메탈파이프를 만들기까지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3년여의 시간이 소
요되었는데, 지난 4주 동안 공정 약 2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 9
월초에 파이프오르간은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본인을 포함한 6명의 제작자들은 서
울교회의 오르겔 제작을 위해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로써 각자 자
기 전문 분야별로 작업하고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오르겔이 되도록 모두 힘써 일
하고 있다.

우선 오르겔을 세우기 위한 첫 기초 작업으로서 전체적
틀을 만들기 위해 지탱할 뼈대의 주축이 되는 버팀목과 기
둥을 H-빔을 이용해 3주에 걸쳐 쌓아올랐다.

오르겔이 세워지면 전면의 얼굴에 해당하는 프로스펙
트를 제외하고는 오르겔 속의 크고 작은 파이프들을 볼 수
가 없게 되는데 우선 파이프의 무게와 크기로 인해 먼저
Soubass 32'와 16'의 일부분의 파이프들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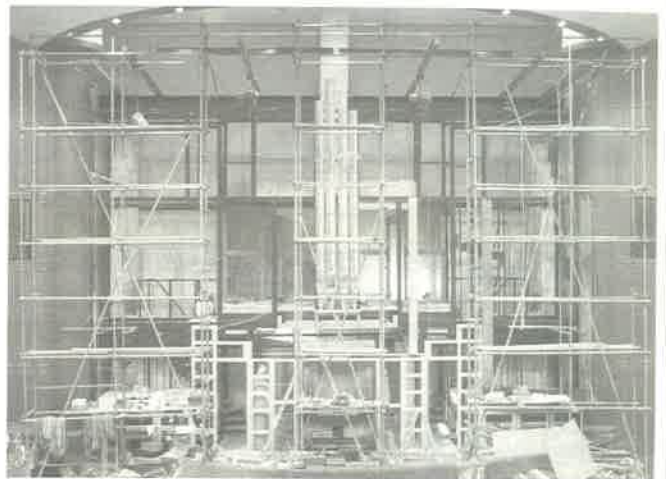
서울교회의 파이프오르간은 57개의 레지스터(악기의
군)를 가지게 되며, 총 3,827개의 파이프가 장착이 된다.

파이프들의 길이는 천차만별이지만 작은 것으로는
5mm, 긴 파이프는 10여m 정도 되는데 가장 무거운 파이프
는 250kg이 넘는 것도 있다. 서울교회의 오르겔은 넓이
12.5m 높이 13m 깊이 5m의 볼륨을 가지고 있다.

오르겔의 총 무게가 자그마치 32톤을 상회한다.
다음주부터는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프로스펙트(전면

부)의 케이스부분
을 만들기가 시작 된다. 파이프오르간은 어디에 세우든지
오직 그 곳의 공간만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며, 한번 세워지
는 오르겔은 그 수명 또한 영구적이다. 그 일례로 스위스
리옹의 한 성당의 파이프오르간은 약 600여년이 지난 후
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반주를 하고 있다.

서울교회의 파이프오르간도 역사와 시대를 대변하며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서
의 역할이 되도록 뿐만 아니라 이 오르겔이 아름다운 예술
로 거듭나도록 우리의 제작자들은 오르겔의 완성을 볼 때
까지 긴장을 하며 작업에 임하고 있다.



동정

- 이중윤 목사는 지난 9일 한국 기독교 학술원 이사회에서 제3회 기독교 학술상 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22일(목) 제3회 군선교 신학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한다.
- 득녀 - 5월 9일, 12교구 김길중 성도, 김수진성도 가정, (김용호집사, 홍희순집사의 손녀)
- 이사: 김진희 집사(14교구) 개포 현대APT 105-1001 Tel 578-8353
- 급증의 식사: 김복녀 권사 가정 (이중윤, 이승희-어머님 생신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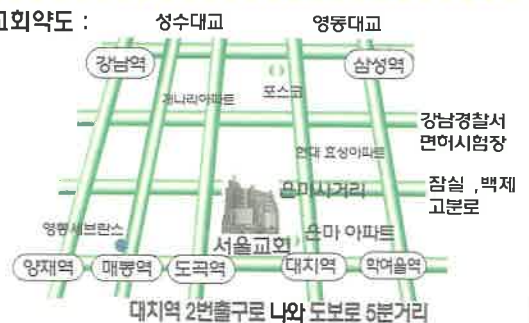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Y 106.9M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2. 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5월 25일에 있을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하여